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93~119
http://dx.doi.org/10.21211/JHUM.97.4

유가철학에서 과묵함은 미덕인가?

고은강*

〈차 례〉

1. 문제제기
2. 의례적인 말
3. 언행일치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가철학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원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유가철학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반언어적 성향, 즉 '과묵함', '말없음'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유가철학에서 과묵함의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전통 사상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첫 번째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격식 차린 말, 빈말로 의심할 수 있는 의례적인 말의 기능이다. 말을 예로 규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하는 전통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태도, 말을 삼가는 과묵함이 미덕일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다. 두 번째는 언행일치는 강조하는 전통이다. 언행일치를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말을 삼가는 편이 언행일치를 이루기 쉽기 때문에 과묵함이 미덕이 된다는 추론을 비판한다. 본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한국 전통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언행일치를 양립 가능한 실천 규범으로 다듬는 시도다. 유가철학에서는 '할 말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언행일치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언행일치에 전전긍긍하여 말을 삼가는 사람을 경계한다. 말에 따르는 실천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말 자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어』, 『맹자』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기본 윤리다.

주제어: 과묵함, 언행일치, 의사소통, 논어, 맹자

1. 문제제기

말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무색할 만큼 침묵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됨은 주지의 사실이다.[1] 고대 그리스 민주정으로부터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토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폴리티쿠스인 인간에게 언어란 인간을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특질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장에

1) 권관희, 「침묵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 제63호, 2017, p. 12. 언론학에서 주된 연구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원인에 주목한다. 예컨대, 윤수진, 최진호, 손동영,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종류와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65권 4호, 2021, pp. 148-184.

서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인간의 특질을 드러내야 하며, 언어의 사용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어의 중요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강조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의사소통 매체의 발달로 정치에서 언어의 영향력은 일상화되어 날로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신문사를 찾아가거나 시위를 조직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혹은 퇴근길에 몇 글자의 말로 혹은 짧은 영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끄럽다. 언쟁은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다. 전체주의 사회의 주된 징후로 말의 실종을 꼽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는 전제군주에 의한 강력한 언론 탄압의 극단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근대국가라도 전체주의화된 사회에서는 말이 실종된다. 언론사 폐쇄, 언론인 사찰, 검열 등 드러난 언론 통제뿐만 아니다. 사적인 대화의 장에서조차 교육과 자기 검열의 결과로 말의 의미가 탈개인화되는 현상이 목격된다.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생성되어 주입된 의미만이 발화되고 소통된다.[2] 한나 아렌트가 포착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3]은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말의 의미가 탈개인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말의 의미의 탈개인화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의사소통에 반하는 현상이다.

말의 의미가 탈개인화하는 현상을 민주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의 하나로 간주하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의례화된 말이다. 고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를 가정

2) 말에서 주체의 문제는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잡았다. 푸코의 『말과 사물』은 이 문제를 철학에서 제기한 고전에 속하며, 파이지스의 『속삭이는 사회』는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억압체제를 언어생활에서 개인성의 상실을 중심으로 포착하였다.

3)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17.

하더라도 정치적 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말의 의미가 탈개인화되는 현상은 존재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 즉 화자(話者)의 말이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다. 언어 습관에 배어있는 의례화된 말, 말을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형식적인 말이 이에 해당한다. 의례화된 말은 도덕의 영역이다. 말에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이상한 사람, 교육이 덜 된 사람 등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의례화된 말이 갖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의례화된 말은 종종 민주적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여겨진다. 의례화된 말은 탈개인화된 말이다. 의례화된 말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각자의 의사를 교환하는 일이라 부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민주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의례화된 말은 말의 의미가 탈개인화된 전형적 사례이지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사회에서 아이히만의 마지막 말과 같은 언어 사용이 증가한다면 전체주의화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의례화된 말의 사용 역시 그러할까? 의례화된 말은 예(禮)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례(三禮)의 하나인『의례(儀禮)』는 의례화된 말의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이다. 의례화된 말이 없이 예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의례화된 말로 점철된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전달은 분명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례화된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과묵함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유가철학에서 과묵함의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전통 사상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첫 번째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격식차린 말, 빈말로 의심할 수 있는 의례적인 말의 기능이다. 말을 예로 규제하는 전통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태도, 말을 삼가는 과묵함이 미덕일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다. 두 번째는 언행일치는

강조하는 전통이다. 언행일치를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말을 삼가는 편이 언행일치를 이루기 쉽기 때문에 과묵함이 미덕이 된다는 추론을 비판한다.

본 논문은 유가철학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원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유가철학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반언어적 성향, 즉 '과묵함', '말없음'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의례화된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개인 간의 의사 교환이 주가 되는 현대사회의 의사소통과는 다르지만, 개인주의에 반하거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사소통 형식은 아니다. 오히려 의례화된 말은 개인 간의 거리두기에 기반을 둔 상호 존중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인주의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행이 유가철학에서 기인하였다는 통념[5]의 근거를 분석하여, 유가적 질서가 개인의 의사를 억압하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혐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4) 고은강, 「禮와 비지배의 자유에 관한 일고찰」,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제36집, 2014, pp. 91-116.

5) 존스타드는 한국, 중국, 일본(Far East Asians)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연구 사례를 통해 이 지역의 학생들이 북미 혹은 유럽의 학생들에 비해 과묵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배경에 "발화가 침묵보다 생각을 가로막는다"(존스타드, 토마스.(Jernstad, Thomas F.), "Student Classroom Reticence and th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pproach",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33집, 2003, p. 172)고 보는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업 시간에 보이는 침묵(quiet)의 원인으로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적 에토스, 즉 유교(Confucianism)"(존스타드 앞의 논문 p. 143)를 언급하고 있다.

2. 의례적인 말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전통 의식과 예절로 대표되며 예절에는 의 례화된 말이 따른다. 의례화된 말 중에서 긍정적 기능보다 폐해를 강조할 때 요식행위 또는 허례(虛禮)라 부른다. 허례가 갖는 부정적 의미는 자명하다. 그러나 "진지 드셨어요?"라는 인사말은 대개의 경우 식사 여부를 묻기보다 의례화된 말로 쓰이지만 허례라고 비난받지는 않는다. 허례라 칭한다면 이는 비난이다. 허례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나 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꾸민 예절"이다. 동어반복으로 만들어진 동의어 허례허식(虛禮虛飾)도 같다. 허례의 사전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예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예에는 반드시 마음이나 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다. 이 때, 마음이나 정성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말이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나 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진지 드셨어요?"라는 말이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단지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도 마음이나 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말에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있는가의 여부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다. "마음이나 정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깎아 내리게 된다.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듣는 사람은 말에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있다고 볼 것이다. 반대로 평소에 인격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나 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의례화된 말이 빈말, 허례, 요식행위인가 아닌가 여부는 말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말의 의미를 말 자체만이 아니라 화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관점은 유가철학의 주된 관점이다.[6] 말만 번드르르한

6) 엄연석,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信]' 개념」, 서울대학교 철학

사람에 대한 경계는 유가철학의 원류인 『논어(論語)』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 말 자체가 가리키는 실체보다 과장된 경우나 말에 따라야 할 실천이 결여된 경우를 포함하여 빈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주된 판단 지표로 작용한다.

말의 의미의 탈개인화 현상 중 하나인 의례화된 말이 모두 빈말, 허례로 비난받지는 않는다. 의례화된 말 중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말도 있다. 말 자체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말, 즉 의례적으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다고 간주되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 "진지 드셨어요?"라고 묻는 말에 대해 설사 밥을 안 먹었다고 해도 "응, 먹었어. 고마워."라고 답하는 경우, 고마움은 안부를 물어봐 주는 상대의 마음과 정성에 대한 고마움이다. 이 상황에서 밥을 먹었는가, 아닌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아도 말 자체의 의미를 전달하면 빈말이나 허례는 아니다. 식당 주인이 점심시간에 자신의 식당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업활동으로 묻는 "진지 드셨어요?"라는 말에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도 빈말이나 허례는 아니다. 말이 가진 의미와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으면 허례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말은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나 정성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중시하지만 허례허식을 경계하는 유가철학에서 빈말은 당연히 삼가야 한다. 빈말에 대한 경계는 말을 무겁게 여기고 삼가는 주된 이유다. 말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듣는 사람이 말이 속한 맥락에서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말이 가리키

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15집, 2002, pp. 165-191.

는 행동이나 사물의 실재 여부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빈말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의례적인 말일 경우, 마음이나 정성의 실재 여부가 빈말의 판단 기준이 된다. 화자는 마음이나 정성을 담아서 말을 해야 하며 청자(聽者)는 말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과 화자의 평소 인격을 종합하여 말에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와 관련된 유가의 대표적인 경전인 『예기(禮記)』는 말에 대한 경계로 시작한다. 말을 안정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경계다. 『예기』의 첫 장인 「곡례(曲禮)」의 처음은 다음과 같다.

> 곡례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엄숙하여 생각하는 듯하다. 일정하게 말(辭)한다.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다.[7]

말에 대한 경계는 이어진다.

> 예는 헛되이 남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말(辭)을 허비하지 않는다.[8]

헛된 말을 삼가고 할 말만 하라는 경계다. 상대방이, 백성들이 이해할 때까지 통치자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아니다. 말을 가능한 한 삼가라는 조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긴 말이라고 해도 삼가야 한다. 특히 헛되이 남을 기쁘게 하는 말, 즉 빈말은 『논어』의 교언영색(巧言令色)과 같은 맥락에서 옳지 않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도 헛되지 않은 말이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하는 빈말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빈말이 없다면 말은 안정되고 말수는 줄어들게 된다.

---

7) 『禮記』「曲禮 上」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8) 『禮記』「曲禮 上」禮 不妄說人 不辭費

빈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안정되게 함으로써 말의 진정성이 높아지면 미덕이 된다. 말을 많이 하면 빈말이 늘고 한 말을 번복하는 일이 생기기 쉬워져서 말의 진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의 진정성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말을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고대 유가철학의 문헌에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신중함이 강조된다. 『예기』「치의(緇衣)」편에는 공자의 말씀을 빌려 말에 대한 경계가 이어진다.

> 공자가 말했다. 소인은 물에 빠지고(溺) 군자는 입에 빠지고 대인은 백성에 빠진다. 다 무람없이 친근한 것이다. …(중략)… 입은 허비하면 번거롭다. 입 밖에 내기는 쉽지만 뉘우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로써) 남을 빠뜨리기(溺) 쉽다. …(중략)… 그런 까닭에 군자는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9]

고대 유가철학의 문헌에 나타난 의사소통은 예, 즉 규칙을 따른다. 말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한다. 비록 남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도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한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예에 맞게 말하는 것이다.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10] 예에 맞는 말이란 빈말, 허례허식이 아닌 말로, 말이 실제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 한 마디로 언필신(言必信)이라 할 수 있다. 언필신, 즉 '말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논어』에 나온다.[11] 『논어』에서 공

---

9) 『禮記』「緇衣」 子曰 小人溺於水 君子溺於口 大人溺於民 皆在其所褻也 …(중략)… 口費而煩 易出難悔 易以溺人 …(중략)… 故君子不可以不愼也

10) 『論語』「顔淵」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11) 언필신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고은강, 「선진철학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일고찰: 언필신(言必信)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제43집, 2020, pp. 37-63 참조.

자는 '언필신에만 얽매인다면 소인'이라고 지적하여 언필신을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공자의 지적은 언필신을 소인의 자질로 간주했다기보다는, '말에 부합하는 사실만 있다면 그 말은 진실이다.'라는 형식 논리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12] 언필신의 함의 즉 말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다른 구절들과의 일관성 때문이다. 『예기』에서 언필신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 공자가 말했다. 말이 나아가고 나서 행한다면 말은 꾸며서는 안 된다. 행동이 나아가고 나서 말을 한다면 행동을 꾸며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군자는 말을 적게 하고 행함으로써 신뢰(信)를 이룬다.[13]

말에 과장이 있다면 말에 따라 실천하기 어렵다. 행동에 허세가 있다면 행동을 설명하는 말 또한 과장되어 거짓이 될 것이다. 언필신을 항상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말을 줄이고 이미 발설한 내용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언필신에서 말은 곧 맹세이므로 맹세가 많아지면 실천하기 어렵게 된다. 말에는 행동이, 행동에는 말이 수반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관념은 『예기』뿐만 아니라 유가 문헌에서 두루 발견된다. 이러한 관념은 성인군자, 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강조된다. 군자는 백성들을 말과 행동으로 인도하여야 하기에 언필신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남을 인도할 때 말로써 하고 남을 막을 때 행동으로써 한다. 따라서 말은 반드시 그 종착점을 생각하여야 하고

12) 『묵자(墨子)』「겸애(兼愛) 下」에 언필신을 지키는 데 연연하는 선비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공자 역시 언필신에 대한 잘못된 실천으로 이 점을 경계한다.

13) 『禮記』「緇衣」 子曰 言從而行之則言不可飾也 行從而言之則行不可飾也 故君子寡言而行以成其信

> 행동은 반드시 그 폐단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게 될 것이다.[14]

왜 언필신을 실천하여야 하는가? 『예기』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곡례」의 시작을 보면, 말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구절에 이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말에 부합하는 행동 즉 언필신의 실천으로 말에 일정함 즉 규칙성을 부여하면 백성이 편안하게 된다는 논리다. 말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일정함, 예측가능성이야말로 성문법의 기초다.

> 공자가 말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김에 몸이 반듯하지 않고 말이 (행동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의가 일정하지 않고 행동에는 구분(類)이 없다. 공자가 말했다. 말에는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고 행동에는 격이 있어야 한다.[15]

『예기』「치의」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곡례」 시작에 나오는 '일정한 말(安定辭)'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반듯하여(正) 자신의 의지와 규칙에 맞는 행동을 구연할 수 있어야 하며 말은 빈말이 없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의 뜻이 일정하고 행동 역시 규칙에 맞게 일정하게 된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은 예의 중요한 요소다. 예 즉 규칙을 따르는 의사소통에서는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둘째, 말의 일관성 및 행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같은 말이라면 같은 행동, 같은 사물을 가리킴으로써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같은 행동이라면 같은 품격을 지녀야 한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은

---

14) 『禮記』「緇衣」 子曰 君子道人以言而禁人以行 故言必慮其所終而行必稽其所敝 則民謹於言而愼於行

15) 『禮記』「緇衣」 子曰 下之事上也 身不正言不信則義不壹行無類也 子曰 言有物而行有格也

예가 아니다.

‘일정한 말(安定辭)’이란 반드시 실행되는 말이며 이러한 말의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이 성문법의 기초가 됨을 시사하는 구절이 「애공문(哀公問)」편에 나온다.

> 애공이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일컬어 몸(자신)을 공경한다고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군자가 발언(言)을 지나치게 하더라도 백성은 (이것으로) 사설(辭)을 만들고 움직임을 지나치게 하더라도 백성은 (이것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군자가 발언(言)하되 사설이 되기에 지나치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법칙이 되기에 지나치지 않으면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16)

말이 지나쳐서 설령 허물이 있어도 백성은 허물을 의심하지 않고 논리가 있는 사설로 군자의 말을 재구성한다. 행동 역시 같다. 행동에 허물이 있어도 그 행동을 본받아 규칙으로 만든다. 군자가 백성보다 말과 행동을 삼가야만 하는 이유다. 군자는 말과 행동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기에 말과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군자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위 구절에서는 말을 뜻하는 언(言)과 사(辭)가 다른 뜻으로 쓰였는데 전자는 발화를 뜻하고 후자는 말들로 구성된 사설, 사변을 뜻한다.

말에 대한 경계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말을 굳이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은 생각을 전달한다. 화자의 마음이나 정성을 과장이 없이 딱 그만큼만 전달하는 말이 예에 부합하는 말이다. 이 경우 말은 화자의 마음과 정성을 전달한다. 그런데 화자의 마음이나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임에도 말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

16) 『禮記』「哀公問」 公曰 敢問何謂敬身 孔子對曰 君子過言則民作辭 過動則民作則 君子言不過辭 動不過則百姓不命而敬恭

되며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말은 흔히 진실(truth)을 담고 있다고 간주된다.[17] 마음이나 정성이 담기지 않아도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나 행동이 존재하므로 언필신이 갖는 일관성이 있고 이 일관성에 의거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례적인 말의 기능을 살펴보면, 의례적인 말이 과묵함을 미덕으로 만들며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언행일치를 중시하는 유가철학의 근본 윤리와 배치되지도 않는다. 말에 대한 경계가 넘쳐나는 유가의 경전들과 문헌들이 결코 말을 삼가고 과묵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윤리로 귀결되지 않음을 다음 장에서 논할 것이다.

3. 언행일치

말만 번드르르 한 사람에 대한 경계는 유가철학, 유가윤리 전체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구절은 『논어』「양화(陽貨)」편에 나오는 향원(鄕原)에 대한 경계다. 그 외에도 『논어』「학이(學而)」 편에 "말을 꾸미고 낯빛을 꾸미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이 드물다.[18]", 『논어』「옹야(雍也)」편에 "실질이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꾸밈이 실질을 이기면 겉만 번지르르하다. 꾸밈과 실

17) '흔히'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말과 진실의 관계를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푸코가 『말과 사물』 그리고 그 이후의 강연들에서 언급한 말과 진실의 관계는 단순하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으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 푸코에 따르면 말과 사물의 관계는 특정 시대에 국한된 에피스테메일 뿐이며 단순히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말이 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푸코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사물-진실의 관계 역시 소위 '지식의 고고학'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사물-진실의 관계에 대한 명제는 없다.

18) 巧言令色 鮮矣仁

질이 어우러져야 군자다.[19]” 등이 있다. 현대에도 일상용어로 쓰이는 교언영색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과 표정을 꾸미는 행동, 특히 상대방에게 잘 보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가리킨다. 문승질(文勝質)이 말에 허세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라면 교언영색은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는 아첨꾼에 대한 경계다. 군자는 교언영색하지 않으며 말에 허세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도 천박하거나 촌스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인용은 『논어』「양화(陽貨)」 제13장에 나오는 향원에 대한 공자의 경계다.

> 공자가 말했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20]

‘향원’을 주자(朱子)는 ‘비속한 사람’이라고 풀었다. 주자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개 유행을 같이 하고 더러움에 야합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 아첨한다. 따라서 향리 사람들 가운데 홀로 ‘공손하다(愿)’라고 칭송받는다. 공자(夫子)께서 ‘이는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어서 오히려 덕에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하며 이런 까닭에 덕의 적으로 심각하게 여기신 것이다.[21]

『논어』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향원과 위인지학의 연결고리는 향원의 의미를 부연설명한 『맹자(孟子)』「진심 하(盡心 下)」 제37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제37장의 내용 중에서 만장(萬章)이 공자가 말한 향원의 뜻에 대해 맹자에게 묻는 구절이다.

---

19)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20) 子曰 鄕原 德之賊也

21) 蓋其同流合汚 以媚於世 故 在鄕人之中 獨以愿稱 夫子以其似德非德而反亂乎德 故 以爲德之賊而深之 詳見孟子末篇

(만장이 다음과 같이 묻는다.)[22] "공자께서 '내 문을 지나가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자는 그 오직 향원뿐이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쭙습니다. 어떠하면 향원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맹자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광자(狂者)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이리 뜻이 큰가? 말이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며,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옛 사람아, 옛 사람아'라고 하는구나! (라고 비난하며 견자(獧者)에 대해서는) 행동을 왜 홀로 쓸쓸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위해 (남들이) 좋다고 하면 이것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며 몰래 세상에 아첨하는 자, 이것이 향원이다."[23]

'향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라는 만장의 질문에 대하여 맹자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된 거지'라고 하면서 광자와 견자와 자신을 차별화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주자는 『맹자』를 근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주석을 달았을 것이다. 향원이 자신과 차별화하는 광자와 견자는 향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과 불화를 자처하는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다. 광자와 견자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향원에 대한 만장의 질문 앞에 나오는 대화의 주제다. 광자와 견자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맹자가 말한다. 공자께서는 "중도를 얻어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나 견자(를 얻어 함께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는 하지 않는 바가 있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얻고자 하지 않았으랴만 반드시 얻는다고는 할 수 없기에 차선을 생각하신 것

22) 해석의 괄호는 본문에는 없으나 이해를 위해 삽입한 말이다.

23) 孔子曰 過我門而不入我室 我不慊焉者 其惟鄕原乎 鄕原 德之賊也 曰 何如 斯可謂之鄕原矣 曰 何以是嘐嘐也 言不顧行 行不顧言 則曰 古之人 古之人 行何爲踽踽涼涼 生斯世也 爲斯世也善斯可矣 閹然媚於世也者 是鄕原也

> 이다. …(중략)… (광자란) 뜻이 커서 말하기를 “옛 사람아, 옛 사람아” 라고 하지만 그 행동을 살펴보면 (행동이 말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광자를 얻을 수 없다면 불결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가 견자다. 이것이 차선이다.[24]

중도(中道)는 중용의 길을 얻는 사람이다. 중(中)은 ‘가운데’라는 뜻 외에 ‘맞추다’라는 뜻도 있다. 중도는 딱 맞는 길, 딱 맞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한국어에도 ‘중도를 걷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양극단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용이라는 뜻의 중도를 취하는 사람은 중간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딱 들어맞는 방법을 알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인이 그러하다. 그런데 성인은 쉽게 만날 수 없다. 어떤 행동이 더도 덜도 아닌 행동인지는 행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중도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성인과 더불어 성인의 도를 배우고 싶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광자가 차선책이라고 맹자는 말한다. 광자 곁에서라도 학이시습하면 좋겠지만 그도 어렵다면 견자다. 성인이 아니라면 광자, 광자가 아니라면 견자라고 등급을 나눈 기준은 학이시습의 효과일 것이다. 성인 곁에서 배우면 중도를 배운다. 광자 곁에서 배우면 중도는 아닐지언정 큰 뜻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견자 곁에서 배우면 큰 뜻을 품지는 못할 지라도 더러운 세속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맹자와 만장의 문답에서 보면, 중도란 큰 뜻이 담긴 말과 그 말

---

24) 孟子曰 孔子不得中道而與之 必也狂獧乎 狂者 進取 獧者 有所不爲也 孔子豈不欲中道哉 不可必得 故 思其次也 其志嘐嘐然曰 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狂者 又不可得 欲得不屑不潔之士而與之 是獧也 是又其次也

이 행동으로 실현되는 방법을 가리킨다. 중도란 언행일치다. 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말하며 그 뜻을 행동으로 이루는 데 성공하는 사람. 그 성공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거의 실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마치 행동하기 전에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성인이라 불리고 숭배된다. 광자는 언행일치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큰 뜻을 품고 이를 말로 하는데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한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 노력하지만 실패율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광자가 성인 다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광자가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자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뜻을 굽히지 않는다. 큰 뜻을 여전히 품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주저함이 없다. 행동이 말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이 행동에 부합하기 위해 말을 줄이거나 뜻을 고치지 않는다.

말은 곧 맹세다.[25] 맹세는 자기자신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기도 한다. 맹세는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 앞서는 상황이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유가철학, 유교의 전통에서는 말을 무겁게 여긴다. 말을 삼가라는 내용이 없는 경전이 없을 정도다. 언행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은 맹세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에 기초를 둔 예, 예에 기초를 둔 법(法)이 만들어 진다. 이것이 유교적 질서다.

그렇다면 말을 무조건 적게 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말만 하여야 할까? 이렇게 되면 인간 개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맹세의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맹세만

25) 언어가 가진 맹세의 기능에 관하여 고은강, 「선진철학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일고찰: 언필신(言必信)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제43집, 2020, p. 60 참조.

한다면 내일이 오늘과 같고 모레가 내일과 같다. “오늘은 1km를 달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km를 달릴 거야”라는 맹세와 “오늘은 100m도 뛰지 못했어.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2km를 달릴거야”라는 맹세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일주일 후에 다 맹세가 다 실현되었다면 발전의 정도는 후자가 더 크다. 이 두 맹세가 각각 다른 개인에게 나왔다면, 그리고 이 두 개인이 이러한 맹세를 반복한다면 일 년 후에 누구의 발전이 더 클 것인가?

호모폴리티쿠스의 핵심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주목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상에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개개인이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견해를 말로 표현하고 개개인의 견해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곧 정치권력이 되고 그 정치권력이 법을 만든다. 개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없고 연장자나 종교지도자 등 다른 누군가의 견해가 개개인의 견해를 대신하는 사회, 개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회, 개개인의 견해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이 민의(民意)가 되어도 민의에 의해 법을 만들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맹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을수록 그 맹세에 담긴 뜻은 원대하다. 그리고 그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맹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온라인 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맹세와 맹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기록들을 보면 혼자 하는 맹세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광자는 비록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더욱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말을 통해 자신의 큰 뜻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여기에 광자와 견자의 차이가 있다. 견자는 말을 삼간다. 광자에 비해 언행일치의 확률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말에 담긴 뜻이 충분히 크지 못하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보수적이어서 믿음을 주며 고결하지만 그 뜻이 성인이나 광자에 비해 턱없이 작거나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누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삼가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언행일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맹자는 공자가 향원을 덕의 적이라고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 (맹자가) 말한다. 비난하려 해도 딱히 비난할 것이 없고 꾸짖으려 해도 꾸짖을 것이 없다. 유행하는 풍속을 같이 하고 오염된 세상에 야합한다. 평소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듯하고 행동은 청렴결백한 듯하여 대중들이 모두 좋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만 (이러한 사람과) 요순의 도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의 적이라 하신 것이다.[26]

향원에 대한 맹자의 자세한 설명을 훗날 주자가 이어서 『논어』의 주석으로 붙였다. 향원이 왜 덕의 적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가? 향원이 사이비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길을 가는 군자와 구별이 어려운 사이비.[27] 군자연하는 향원을 군자로 착각하

---

26) 曰 非之無擧也 刺之無刺也 同乎流俗 合乎汚世 居之似忠信 行之似廉潔 衆皆悅之 自以爲是而不可與入堯舜之道 故 曰 德之賊也

27) 박성규는 군자와 향원이 동일한 범주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원 비판이란 곧 군자에 대한 경계임을 강조한다(박성규, 「공자·맹

여 향원의 방법을 학이시습하게 되면 성공하여도 향원에 그치고 만다. 군자가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더 나쁜 점은 향원이 광자나 견자가 될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것이다. 군자의 방법, 즉 중도를 취하는 데 실패한다고 해도 뜻이 행동보다 큰 광자나 혹은 언행일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견자의 방법을 취하면 차선, 차차선은 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향원의 방법을 취하면 차선, 차차선도 취할 수 없게 된다.

군자, 광자, 견자와 향원은 방법의 차원에서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으로 다르다.[28] 이러한 방법을 따라가서 이르게 되는 결과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군자연하는 사람은 붕 뜬 삶을 살아간다. 붕 뜬 삶이란 일관성이 결여된 삶, 분리되어 통일되지 않는 삶이다. 위인지학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기 어려운 삶이다. 생각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언정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기준이 되기에 자신의 판단 없이 휩쓸려가기 쉽다.

"유행하는 풍속을 같이 하고 오염된 세상에 야합"하는 모든 사

자의 향원 비판」,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제17집, 2000, pp. 18-19).

28) 이혜경 역시 "위인지학은 향원의 학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위기지학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향원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 부족한 사람, 견자 다음에 위치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혜경, 「향원을 향한 유가윤리의 비판은 정당한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39권, 2011, p. 18). 이장희는 향원이 덕의 적이 되는 근거가 '사이비'임을 강조하며 이혜경의 향원에 대한 변론을 재반박한다(이장희, 「향원(鄕原)은 왜 덕(德)의 적(賊)인가?」,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24집, 2012, pp. 79-102). 필자는 향원이 군자, 광자, 견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기존의 견해 또는 통상적 해석(예컨대 정태인, 「광간과 향원」, 월간말, 『월간말』 166호, 2000, p. 240)을 지지하며 결과주의의 관점에서 향원을 변호하고자 한 이혜경의 시도에 반대한다. 향원은 광자나 견자의 방법을 취하여 언젠가 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이다.

람이 다 향원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만이 "비난하려 해도 딱히 비난할 것이 없고 꾸짖으려 해도 꾸짖을 것이 없"는 범주의 사람들이다. 시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상당수는 꾸지람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각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다. 사람들은 시류를 따라가다가도 비난받거나 꾸지람을 들으면 행동을 성찰하거나 행동을 그만둔다. 향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기에 행동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향원은 비난에 직면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향원은 시류를 따라가기에 자기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신의 행동을 자기 논리로 합리화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이다. 논리, 즉 뜻이 행동 이후에 만들어진다. 뜻, 말, 행동의 순서가 아니라 행동을 하고 이후에 행동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에 따라 필요하다면 말을 바꾼다.

행동은 일단 휩쓸려가고 추후에 자신의 행동을 "행동을 왜 홀로 쓸쓸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위해 (남들이) 좋다고 하면 이것으로 된 것이다."라고 합리화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들 사이에 일관성을 찾기 어렵게 된다.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도 그 행동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향원은 분주할 수밖에 없다. 행동들 사이에 일관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합리화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이 논리가 정합성을 잃으면 궤변이 되고 궤변을 일삼으면 궤변론자가 된다.

향원이 궤변론자가 되는 동안 향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된다. 군자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행동은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을 보도록 노력한다. 군자연하는 사람들이 군자로 착각하여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언어다. 군자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데 언어를 사용한다. 일기를 쓰

고 자서전을 쓴다. 자신의 행동이 청렴결백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강연을 하고 저서를 출간한다. 군자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서툴다. 군자연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따라 해 보지만 그들의 말은 질박하지 않고 현란하여 따라 하기 어렵다. 교언영색이다. 말도 현란하지만 논리 역시 궤변이라 그때그때 바뀌는 논리를 따라가기 어렵다. 향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면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에 상응하는 언어, 뜻이 결여된 사람이 된다.

4. 결론

동아시아 사회에서 예는 갈등과 싸움을 적절히 통제하는 조절 기제이며, 개인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전근대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 규칙에 기반을 둔 일종의 사회 기획이다. 이러한 철학적 기획 의도와는 별개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예는 신분 질서를 통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던 탓에 차별과 배제, 억압과 모욕 등 부정적인 의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일상화된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의례화된 말을 통한 의사소통은 말에 내재한 권력과 폭력, 권력과 폭력으로 야기된 갈등과 싸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례화된 발화들로 이루어 진 대화는 마음과 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싸움을 막는 장치다. 마음과 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말, 즉 진정성이 결여된 말은 갈등과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에서라면 갈등과 싸움은 사회적 혼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례화된 발화만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대화라면 진정성이 개입할 여지는 처음부터 차단되고 진실성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 『의례(儀禮)』에 나오는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을 예로 들면, 정해진 발화와 동작으로 구성된 의식을 구현할 때 언행에 진실성이 있다고 본다. 행동(行)이 말(言)을 구현하여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면 접대를 하는 쪽과 접대를 받는 쪽 모두 예에 합당하게 접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역으로, 결례를 의도하여 갈등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진실성을 근간에 둔 공적 대화에서 발화자가 개인적인 마음과 정성을 전달하려는 시도 즉 진정성이 담긴 말을 한다면 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필신 행필과에 함축된 행동 중심의 언행일치는 단지 말을 삼가고 말수를 적게 하여 언행일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행동을 과감하게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언행일치를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언필신 행필과에 전전긍긍하여, 말을 삼가고 행동 역시 그에 맞춰 소극적으로 하면 소인이 된다. 학이시습이 부족하여 지금 당장 군자가 될 수 없다면 차선으로 광자를 제시한 이유다. 뜻이 담긴 말, 맹세가 있어야 행동이 따른다. 큰 뜻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견자도 가능하다. 견자 역시 행동은 과감하다. 광자와의 차이는 말에 담긴 뜻이다. 우활(迂闊)해 보이는 당장은 실천불가능한 말을 하는 광자와 달리, 견자는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아끼고 회피하는 소인은 아니다.

군자와 더불어 광자, 견자는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간의 비난이 두려워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실천을 맹세하는 말이므로 노력과 책임이 따른다. 말이 실현되어야 하므로 언쟁과 갈등이 수반되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지 않거나 교묘한 말로 얼버무려 피

하는 태도는 향원이다. 해야 할 말임에도 실천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여 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인이다. 소인과 향원의 차이는 크다. 소인은 군자연하지 않는다. 세간의 칭찬을 구할 의도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의(義)가 덜 쌓여서, 말을 할 호연지기를 갖추지 못한 것뿐이다. 이들에게는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본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한국 전통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언행일치를 양립가능한 실천 규범으로 다듬는 시도다. 언필신을 비롯하여 말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유가 철학의 전통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말을 빈말이라고 낙인찍고 경계하는 언어 습관을 남겼다. 빈말이 잦은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낮게 평가하다보니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말이 많은 사람이 과묵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을 한국인의 표현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전통 가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유가철학에서는 '할 말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언행일치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언행일치에 전전긍긍하여 말을 삼가는 사람을 경계한다. 말에 따르는 실천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말 자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어』, 『맹자』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기본 윤리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쟁과 갈등은 예로 조절한다. 예에 맞는 말하기와 글쓰기, 즉 표현 방법을 익히는 일은 동아시아 전통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예에 맞는 의사소통이란 할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이 미덕으로 작용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언쟁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함이다. "말이 칼이 되"[29]는 현

29)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대사회에서 의례적인 말, 격식 차린 말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論語集註』
『孟子集註』
『禮記』

2. 논문

고은강, 「禮와 비지배의 자유에 관한 일고찰」,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36, 2014, pp. 91–116.
고은강, 「선진철학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일고찰: 언필신(言必信)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43, 2020, pp. 37–63.
권관희, 「침묵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 제63호, 2017 p. 12.
박성규, 「공자·맹자의 향원 비판」,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제17집, 2000, pp. 181–203.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17.
엄연석,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信]' 개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15, 2002, pp. 165–191.
윤수진, 최진호, 손동영,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종류와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65권 4호, 2021, pp. 148–184.
이장희, 「향원(鄕原)은 왜 덕(德)의 적(賊)인가?」,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철학』 제24집, 2012, pp. 79–102.
이혜경, 「향원을 향한 유가윤리의 비판은 정당한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제39권, 2011, pp. 3–29.

정태인, 「광간과 향원」, 월간말, 『월간말』 166호, 2000, p. 240.
존스타드, 토마스.(Jernstad, Thomas F.), "Student Classroom Reticence and th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pproach",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33집, 2003, pp. 139-191.

3. 단행본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17.
파이지스, 올란도.(Figes, Orlando), 김남섭 옮김, 『속삭이는 사회』, 교양인, 2013.
푸코, 미셸.(Foucault, Michel.),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94.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투고일: 2021.11.14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고은강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 소: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전자우편: eunkangkoh@seoultech.ac.kr

[Abstract]

Is Quietness a Virtue in Confucian Philosophy?

Koh, Eun-kang

This article examines ritualized conversations and sincerity in Confucian philosophy and suggests positive roles of ritualized expressions today. Democracy is based on debates between individuals and parties. Freedom of speech is evaluated as one of the basic rights. Direct and clear expression is more common than indirect and subtle euphemism in daily conversation. In Confucian ethics, speech should be controlled in moral codes of propriety. Since speech is often regarded as oath, it should be trustworthy. Ritualized conversation is the way in which individuals handle the dilemma between the needs of delivering thoughts and emotion and the penalty for breaking the moral codes of speech. Heavy responsibility for speech in Confucian ethics is often accused of discouraging East Asians from actively participating in conversation and freely expressing themselves. This article is an attempt of reconciliation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traditional moral codes of speech in today's society. This article argues that ritualized conversation is neither hypocritical nor empty. It conveys truthfulness. Moreover, it helps avoiding unnecessary conflict. Today frank and free expression is appreciated and at the same time language violence is a serious problem. It is timely to rethink positive roles of ritualized conversation.

Key words : quietness, sincerity, communication, *the Analects, Mencius*